

## 동성애적 지향성을 지닌 대학생 남성의 사회불안 경험과 사회적 지지 특성에 대한 합의적 질적 연구\*

김 형 지      신 정 훈      연 규 진      김 향 숙<sup>†</sup>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합의적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하여 동성애적 지향성을 지닌 남성 대학생의 사회불안 경험과 사회적 지지의 특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인의 성적 지향성이 동성애적이라고 응답한 대학생 성인 남성 9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3명의 분석팀원과 1명의 감수자에 의하여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 사회불안과 사회적 지지의 2개 영역이 도출되었고, 이에 따라 총 9개의 하위 영역과 24개의 범주가 구성되었다. 사회불안은 일반적인 특성과 더불어 동성애적 지향성과 관련된 특성을 포함하고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참가자는 자신이 경험하였던 사회불안이 사회적 지지에 의하여 감소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들이 긍정적으로 지각한 사회적 지지의 특성으로는 동성애적 지향성과 동성애적 지향성을 지닌 개인의 생활양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수용, 구체적인 도움이나 서비스의 제공, 그리고 자신의 성적 지향성이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는 방식으로 사회적 지지를 전달받는 것 등이 있었다. 본 연구의 참가자가 지지적인 대상을 만나는 경로는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온라인 경로가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동성애에 대한 한국의 고유한 사회문화적 영향 및 차별과 편견에 대한 해결 방안, 동성애적 지향성을 지닌 남성이 경험하는 사회불안에 대한 접근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을 논의하였으며,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의 방향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주요어 : 사회불안, 사회적 지지, 동성애, 성적 지향성, 합의적 질적 연구

\* 본 연구는 김형지의 석사 학위논문을 일부 수정, 보완한 것임.

본 연구는 2012년도 서강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과제번호 201210048).

† 교신저자: 김향숙,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5, E-mail: hyangkim@sogang.ac.kr

사회불안은 타인과 상호 작용하는 상황이나 타인에게 평가 받을 가능성이 있는 수행 상황에서 과도하고 지속적인 두려움 혹은 불안을 경험하며, 창피하게 행동할까봐 두려워하는 인지·정서·행동적 반응이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 2013). 사회불안장애(Social Anxiety Disorder)는 일상적, 직업적, 학업적 및 관계적 영역에서 부적응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APA, 2013), 아동기나 초기 청소년기부터 발병하며(Charrier, Hazen, & Stein, 1998; Kessler, 2003), 만성적인 경과를 보인다(Kessler, 2003; Wittchen, Fuetsch, Sonntag, Muller, & Liebowitz, 2000). 사회불안장애의 평생 유병률은 12.2%로, 주요우울장애(16.6%), 알코올남용(13.2%), 그리고 특정공포증(12.5%)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Kessler et al., 2005).

특히 사회불안은 이성애자보다 동성애 및 양성애적 지향성을 지니고 있는 개인과 트랜스젠더(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LGBT)를 포함하는 성소수자(sexual minority)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며, 경우에 따라 유병률의 차이는 두 배가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Bostwick, Boyd, Hughes, & McCabe, 2010; Pachankis & Goldfried, 2006; Safren & Pantalone, 2006; Sandfort, de Graaf, Bijl, & Schnabel, 2001). 오늘날 성적 소수자 지향성(sexual minority orientation)은 더 이상 정신 장애로 고려되지 않지만, 성소수자들이 사회적 상황에서 보다 더 빈번한 불안을 경험한다는 사실은 이들의 적응을 향상시키거나 돕는 개입에 있어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이다. 이는 동시에 사회불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알려진 기제에 더하여 동성애 및 양성애적 지향성을 지닌 개인을 포함하는 성소수자(Lesbian, Gay, and Bisexual: LGB)들이 직면하고 있는 심

리사회적 특수성이 사회불안의 발생과 유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기한다.

성소수자의 사회불안에 대하여 Hart와 Heimberg(2001)는 다수의 이성애자로부터 거절 당할 수 있다는 기대가 결과적으로 사회불안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Safren과 Pantalone(2006)은 사회적 환경이나 사회적 상호 작용이 두렵거나 위협적일 수 있다는 LGB 개인의 인식 자체가 사회불안을 의미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유사하지만 보다 더 넓은 맥락에서, Meyer(2003)는 문화적 주류에 해당하는 이성애자들이 성소수자인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는 LGB 개인의 기대가 심리적 어려움의 핵심 요인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동성애적 지향성을 지닌 개인의 사회불안의 발생 및 유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제안되는 사회적 수행에 대한 높은 기준, 사회적 평가에 대한 비합리적인 신념, 그리고 자신과 관련된 부정적 신념(Clark & Wells, 1995)만을 고려하기보다는,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거부(social rejection)나 성적 낙인(sexual stigma)에 대한 두려움과 같이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심리사회적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예를 들어, 사회적 낙인(social stigma)은 다양한 형태의 신체적 기형, 실업, 동성애 등과 같은 개인적 특성, 그리고 인종, 종교 등을 포함하는 종족적 정체성에서 파생될 수 있으며, 잘못된 일반화를 통하여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생성하게 된다(Goffman, 1963). 이처럼 낙인찍힌 사회적 정체성을 가진 개인은 자신에게 결함이 있다고 여기거나, 자신의 가치를 평가절하할 수 있기 때문에(Crocker, 1999) 동성애적 지향성을 지닌 개인의 사회불안이 발달·유지

되는 기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성소수자의 사회불안에 관한 기존의 해외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유병률만을 보고하거나 관련된 취약성 요인에 중점을 둔 반면, 사회불안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할 수 있는 보호 요인에 대한 관심은 제한적이었다. 또한 성소수자의 사회불안 경험에 대한 국내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소수자에게 더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사회불안 관련 요인을 탐색하는 데서 나아가 보호 요인에 대한 탐색에 초점을 두고자 하였으며, 특히 사회적 지지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사회불안에서 기인하는 다양한 종류의 어려움으로부터 개인의 정신건강과 적응 기능을 보호하는 핵심 요인인 동시에 (Compas, Wagner, Salvin, & Vannatta, 1986; Lakey, 1989; Stice & Barrera, 1995; Trumbetta, Mueser, Quimby, Bebout, & Teague, 1999; Turner, 1981), LGB 개인의 향상된 정신 건강 및 심리적 안녕과 정적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Grossman, D'Augelli, & Hershberger, 2000; O'Donnell et al., 2002; Rosario, Schrimshaw, & Hunter, 2005; Waller, 2001; Williams, Connolly, Pepler, & Craig, 2005; Zea, Reisen, & Poppen, 1999). 한편, LGB 개인의 성적 지향성과 사회불안 수준에 관한 국외 연구에서 동성애적 지향성을 지닌 개인의 사회불안 수준은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Wadsworth & Hayes-Skelton, 2015),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동성애적 지향성이 남성에 비하여 더 수용적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 (Horowitz et al., 2013). 또한 성적 지향성이 연령에 따라 발달적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 (Savin-Williams & Ream, 2007)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참가자의 동질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동성애적 지향성을 지닌 대학생 남성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대학생 집단의 경우, 데이트, 발표, 동아리 활동 등 사회적 활동이 빈번한 바, 약 40%가 사회적 불안이나 수줍음을 보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권석만, 2013; Pilkonis & Zimbardo, 1979), 성소수자 대학생의 경우에도 사회적 배척으로 인하여 학업 및 교내활동에서의 어려움을 보고하는 등의 특수성을 지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Rankin, 2003, 2005).

사회적 지지 (social support)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지만 (Antonucci, 1985; Cobb, 1976; Cohen, Gottlieb, & Underwood, 2000; Cohen & Hoberman, 1983; House, 1981) 일반적으로 타인과의 도움 관계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지닌 긍정적 자원으로 정의된다. 반면, 대개의 연구자는 사회적 지지의 하위 유형이 단일하지 않다는 점에 대하여서는 동일한 입장을 나타내었다 (Cohen & Hoberman, 1983; Cohen & McKay, 1984; Wilcox & Vernberg, 1985). 사회적 지지의 하위 유형 분류에 대하여 보다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Cobb (1976)은 사회적 지지를 도구적 또는 상담적 (instrumental support or counseling), 능동적 또는 양육적 (active support or mothering), 그리고 물질적 또는 재화 및 용역 (instrumental or goods and services)으로 분류하였다. Cohen과 Wills (1985)는 사회적 지지의 하위 유형을 효능감 지지 (esteem support), 정보적 지지 (informational support), 사회적 동반자 (social companionship), 그리고 도구적 지지 (instrumental support)의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효능감 지지는 개인이 소중하고, 수용되었음을 알려주는 지지이고, 정보적 지지는 당면한 문제를 정의하고,

이해하고, 이에 대한 적응에 도움을 주는 지지를 의미한다. 사회적 동반자는 여가 시간에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함께 활동하는 등의 지지이며, 도구적 지지는 재정적 도움, 물질적 자원, 혹은 서비스의 제공과 같은 지지를 뜻한다. 한편, 성소수자의 사회적 지지와 관련하여 Doty, Willoughby, Lindahl과 Malik(2010)은 성소수자 청소년 대상에 대하여 섹슈얼리티 관련 문제에 특수적인 섹슈얼리티 관련 지지(sexuality related support)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섹슈얼리티 관련 지지는 개인의 성적 지향성을 수용하거나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에 도움을 주는 지지를 뜻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사회적 지지는 크게 가족, 친구, 동료 등이 포함되는 관계-특수적 영역(relationship-specific domain)과 도구적, 정서적, 섹슈얼리티 관련 기능 등이 해당하는 기능-특수적 영역(function-specific domain)으로 구분될 수 있다.

사회불안으로 말미암은 불안감은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촉진시키거나 완충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적 지지와 불안 간의 관계에 대하여 수행된 종단연구에 따르면, 불안한 개인은 그렇지 않은 개인에 비하여 불안할수록 더 낮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를 받는다고 보고하였다(Caldwell & Reinhart, 1988; Haemmerlie, Montgomery, & Melchers, 1988). 이렇듯 불안한 개인이 그렇지 않은 개인에 비하여 지지적인 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하는 데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관점은 사회적 선택 모형(Social Selection Model; Johnson, 1991; Wender, Rosenthal, Kery, Schulsinger, & Welner, 1973)과 상통한다. 또한 이 관점은 사회적으로 불안한 LGB 개인과 그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지지 간

의 관계성에 대하여 Safren과 Pantalone(2006)이 추론하는 바와도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불안과 사회적 지지 간의 관계를 연구한 Stice와 Barrera(1995), Trumbetta, Mueser, Quimby, Bebout와 Teague(1999)는 사회불안과 사회적 지지 간의 인과적 관계성에 대하여 사회불안이 사회적 지지를 악화시키기도 하지만, 역으로 사회적 지지가 사회불안에 영향을 주어 이를 완충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상보적 병합 모형(Combined Reciprocal Model)을 제안하였다. 사회불안과 사회적 지지 간의 상보성을 강조한 이 모형은 청소년(Compas, Wagner, Slavin, & Vannatta, 1986; Lakey, 1989; Stice & Barrera, 1995)과 성인(Turner, 1981)을 대상으로 수행된 여러 실증 연구에 의하여 지지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Leary(1990)가 제안한 사회적 배제 이론(Social Exclusion Theory)과도 일치한다. Leary (1990)는 사회적 배제 이론을 설명하면서, 사회적 지지 체계를 얻는 것이 그 사람의 불안, 질투, 외로움, 그리고 우울을 감소시키는 완충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사회적 지지가 성취 과제 수행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적으로 접근한 송종용과 원호택(1988)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를 받은 집단의 수행 불안 수준이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한 집단에 비하여 더 낮았으며, 반대로 수행 수준은 전자의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비교적 최근에 수행된 사회적 지지와 사회불안 간의 관계 및 영향에 대한 실증 연구에 따르면, 우정의 질과 지각된 사회적 수용이 청소년의 사회불안 증상을 예측하였으며(Festa & Ginsberg, 2011) 또래와의 소속감과 절친한 친구 사이에서 경험되는 긍정적 특성이 사회적으로 불안한 느낌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La Greca &

Harrison, 2005). 즉,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지지가 낮은 수준의 사회불안과 연관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반복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한편, 사회적 지지가 사회불안을 포함하는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에 대하여 완충 효과를 갖는지 여부는 사회적 지지를 받는 사람이 그것을 지지적이라고 지각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개인의 필요에 적절하지 않은 사회적 지지가 제공되는 경우 부적응적인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Werington과 Kessler(1986)는 개인이 실제로 받은 사회적 지지보다 개인이 받았다고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개인의 적응을 예측하는데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개인이 실제로 받은 사회적 지지가 개인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서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통하여 매개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Cohen과 Wills(1985)가 제안한 대응 이론(Matching Theory)의 설명과도 부합한다. 대응 이론은 스트레스원을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특정한 유형의 사회적 지지가 해당 스트레스에 대하여 가장 보호적인 역할을 한다고 가정한다. 예를 들어, 만성적인 의학적 질환을 가지고 있는 개인에게는 치료 계획이나 질환-관련 대처, 혹은 질병 관리 방법과 관련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Fisher et al., 1997). 또한 대학생들 대상으로 수행한 Ingram, Betz와 Mindes(2001)의 연구에 따르면 비지지적인 사회적 상호 작용이 심리·신체 증상을 유의하게 설명하였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에 의한 영향력을 통제 한 이후에도 동일하였다. Berghe, Dewaele, Cox와 Vincke(2010)는 이 연구 결과를, 비지지적인 사회적 상호 작용이 좌절, 분노, 실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 결과 자존감

을 낮추고 타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형성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사회불안을 경험하는 동성애적 지향성을 지닌 남성의 심리적 기제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확장하고 보다 더 적절한 치료적 개입을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사회불안과 상보적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지의 특성, 그리고 그 중에서도 동성애적 지향성을 지닌 개인의 사회적 지지 특성에 대하여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관련 선행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는 LGB 개인의 개인적 및 집합적 자존감(personal and collectivistic self-esteem), 감소된 자살 시도(suicide attempt)와 자살 사고(suicidal ideation), 감소된 위험한 성적 행동의 가능성(lower likelihood of engaging in risky sexual behavior), 낮은 심리적 고통(psychological distress), 그리고 전반적인 심리사회적 적응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이루며, 이들이 경험하는 외로움, 우울, 그리고 외현화 행동(externalizing behavior)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는 점(Grossman, D'Augelli, & Hershberger, 2000; O'Donnell et al., 2002; Rosario, Schrimshaw, & Hunter, 2005; Waller, 2001; Williams, Connolly, Pepler, & Craig, 2005; Zea, Reisen, & Poppen, 1999)에서 여러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완충 효과를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LGB 개인이 긍정적으로 경험하는 사회적 지지의 특성은 이성애를 지닌 개인과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된다. 일례로, LGB 개인은 나이가 들수록 가족 구성원에게 의존하는 이성애자와는 달리, 친구와 동반자(partner)의 사회적 지지에 더 많이 의존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Beeler, Rawls, Herdt, & Cohler, 1999; Dorfman et al., 1995). 한 질적 연

구에 따르면 또래 집단이 주는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과 또래 집단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지지에 의존하고자 하는 경향성은 부모의 거절이 두려워 자신의 성소수자 지향성을 드러내지 않은 젊은 LGB 개인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Muñoz-Plaza, Quinn, & Rounds, 2002). Grossman, D'Augelli와 Hershberger(2000)는 LGB 개인이 사회적 지지망(social supporting network)으로부터 지각하는 만족감이 해당 지지망 구성원의 성적 지향성, 젠더(gender), 그리고 연령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오히려 해당 지지망 구성원이 상대방의 성적 지향성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지식과 밀접한 연관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Nesmith, Burton과 Cosgrove(1999)는 17명의 LGB 초기 성인을 대상으로 수행한 한 질적 연구에서 LGB 개인이 받았다고 보고한 지지는 구체적(concrete), 감정적(emotional), 경제적(financial), 그리고 정보제공적(informative)인 특성으로 구분되었다고 밝혔다. 그 밖에도 성소수자로서의 LGB 개인에게 특수적인 지지적 특성이 보고되었는데, 타인, 그 중에서도 정보제공적 지지를 제공한 타인이 가족보다, 성소수자가 비성소수자보다 더욱 지지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외 연구 결과는 국내의 동일 집단에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한국에서 10대부터 40대 이상의 동성애 및 양성애적 지향성을 지닌 개인 478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 강병철(2011)에 따르면 가족, 이성애자, 그리고 성소수자로부터 받은 사회적 지지 중 가족으로부터 받은 지지만이 성소수자의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병철(2011)은 이 결과가 한국의 특수성이 반영된 것일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국내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발달이 서양에 비하여 아직 미흡하여 성소수자의 실질적 필요를 채워주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처럼 개인은 자신이 속한 사회문화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 동성애적 지향성을 지닌 남성이 사회적 지지의 어떤 특성을 더 지지적으로 지각하는가에 대하여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동성애적 지향성을 지닌 개인이나 동성애적 지향성에 대하여 현재 국내 사회에 존재하는 인식의 영향력에 대한 이해 역시 동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회불안과 사회적 지지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서는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심리사회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요컨대 기존의 관련 연구들은 주로 LGB 개인의 사회불안과 관련한 취약성 요인에 중점을 둔 반면, 사회적 지지와 같은 보호 요인에 대한 관심은 제한적이었다. 특히, 동성애적 지향성을 지닌 개인의 사회불안에 관하여 수행된 선행 연구 중 이들이 사회적 지지의 어떤 특성을 다른 특성에 비하여 더 지지적이라고 지각하며, 어떤 기제를 통하여 그와 같은 지지를 경험하는지를 다룬 연구는 전무하다. 이처럼 관련된 선행 연구가 부족한 바, 본 연구는 질적 접근을 통한 탐색에 초점을 두어 사회불안을 경험하는 동성애적 지향성을 지닌 남성을 대상으로, 이들이 사회불안을 경험하는 상황과 그 경험 기제를 탐색하고, 사회불안을 완충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경험 기제를 합의적 질적 연구 방법(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Method; Hill, 2012; Hill et al., 1997, 2005)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설정한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사회불안**

동성애적 지향성을 지닌 남성이 사회불안을 경험하는 상황, 경험 기제 및 이에 대한 대처는 어떠한가?

**사회적지지**

동성애적 지향성을 지닌 남성이 사회적 지지를 받는 대상, 사회적 지지의 특성 및 영향, 그리고 지지 대상에 대한 접근 경로는 어떠한가?

**방 법**

**면담 참가자**

본 연구에 참여한 동성애적 지향성을 지닌 남성 참가자는 총 9명이었다. 분석 대상이 된 본 면담 참가자의 연령 분포는 만 19세에서 만 26세까지였으며, 평균 연령은 만 22.3세였

고, 모두 대학생이었다. 모든 참가자는 자기보고식 Liebowitz 사회불안 척도에서 30점 이상 (Rytwinski et al., 2009)에 해당하였다. 참가자의 추가적 인적 사항 및 자기보고식 Liebowitz 사회불안 척도의 총점은 표 1에 제시하였다.

**분석팀**

본 연구의 분석팀은 연구자를 포함하는 3명의 합의팀과 1명의 감수자로 구성되었다. 합의팀은 임상심리전문가이자 상담 및 임상심리 전공 교수 1명과 상담 및 임상심리 전공 석사 과정생 2명이었다. 외부 감수자는 상담 및 임상심리 전공 교수 1명이었다. 모든 합의팀원과 감수자는 분석을 위한 첫 번째 모임에서 집단 역동에 대한 주제를 다루었다. 모든 합의팀원은 각 팀원을 존중하고, 발언 빈도의 균형을 고려하며, 서로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대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모든 연구 참가자에 대한 면담은 본 연구의 일차 연구자인 만 28

표 1. 연구 참가자의 인적 사항 및 자기보고식 Liebowitz 사회불안 척도(LSAS) 총점

구분	사례 번호	연령 (만)	거주 지역	직업	종교	동성애에 대한 성적 끌림 자각 연령(만)	첫 커밍아웃 연령(만)	LSAS 총점
본 면담	1	23	서울	대학생	가톨릭	15	19	35
	2	24	서울	대학생	가톨릭	14	21	32
	3	23	인천	대학생	없음	11-12	19	63
	4	20	서울	대학생	가톨릭	15-16	19	40
	5	20	서울	대학생	없음	14	20	45
	6	19	경기	대학생	없음	13	18	45
	7	22	서울	대학생	없음	15	20	60
	8	26	서울	대학생	없음	14	25	32
	9	24	서울	대학생	없음	13-14	21	66

세 남성에 의하여 진행되었다.

#### 면담 프로토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면담 프로토콜은 합의적 질적 연구 방식(Hill, 2012; Hill et al., 1997, 2005)의 권고사항에 따라 구성되었다. 문항의 내용은 본 연구의 주제인 사회불안 및 사회적 지지와 관련된 기존 연구 내용에 바탕을 두고, 지지적인 대상에 대한 접근 경로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반-구조화된 형식으로 제작되었다. 또한 본 면담에 앞서 본 연구의 목표 전집과 동질 집단에 속하는 참가자 2명과의 예비 면담을 통하여 수정·편집 과정을 거쳤다. 이 면담 프로토콜의 질문은 대부분 열린 질문의 형태를 취하며, 다수의 추가 탐색 질문 및 일부 고정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 면담 질문은 다음과 같다.

#### 사회불안

1-1. 사회적으로 불안한, 동성애적 지향성을 지닌 남성은 어떤 상황 혹은 사람과의 만남에서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경험하는가?

1-2. 사회적으로 불안한, 동성애적 지향성을 지닌 남성이 사회불안을 경험하는 심리적 기제는 무엇인가?

1-3. 사회적으로 불안한, 동성애적 지향성을 지닌 남성은 사회적으로 두렵거나 불안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 사회적 지지

2-1. 사회적으로 불안한, 동성애적 지향성을 지닌 남성이 사회적 지지를 받은 대상 및 그 기능은 무엇인가?

2-2. 사회적으로 불안한, 동성애적 지향성을

지닌 남성이 지지적 혹은 비지지적이라고 지각한 사회적 지지의 특성은 무엇인가?

2-3. 사회적으로 불안한, 동성애적 지향성을 지닌 남성이 받은 사회적 지지가 사회불안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2-4. 사회적으로 불안한, 동성애적 지향성을 지닌 남성은 어떤 경로를 통하여 지지적인 대상에 접근하는가?

#### 연구 도구

##### 자기보고식 Liebowitz 사회불안

##### 척도(Liebowitz Social Anxiety Scale-Self Report

##### Version: LSAS-SR)

사회불안 수준이 높은 동성애적 지향성을 지닌 남성을 연구 참가자로 모집하기 위하여 반-구조화된 면접에 앞서 참가자의 사회불안 수준을 평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Liebowitz(1987)가 개발하고 강진화, 이정애, 오강섭, 임세원(2013)이 변안한 자기보고식 Liebowitz 사회불안 척도(Liebowitz Social Anxiety Scale-Self Report Version: LSAS-SR)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적 수행 상황(예: 회의나 모임에서 말하는 것)에 대하여 불안을 경험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두려움/불안척도와, 그 상황을 회피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회피척도를 각각 0점(없음)에서 3점(매우 심함, 항상 회피함)으로 평정하는 Likert식 척도이다. Rytwinski 등(2009)의 연구에 따르면 LSAS-SR 점수가 30점 이상이면 사회불안장애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 도구의 두려움척도, 회피척도, 그리고 총점의 내적일치도는 강진화 등(2013)의 연구에서 각각 .93, .94, .96으로 보고되었다.



## 연구 절차

### 면담 참가자의 모집 및 선정

본 연구의 참가자는 국내 성소수자 인권 단체 세 곳을 통하여 총 두 단계에 걸쳐 모집되었다. 먼저는 면담에 앞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당시 본인의 성적 지향성이 동성애자라고 응답하고 자기보고식 Liebowitz 사회불안 척도 점수가 30점 이상(Rytwinski et al., 2009)에 해당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 남성을 1차적으로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선별된 후보자 중 후속 연구 면담에 대한 설명을 숙지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참가자에 한하여 연구 면담을 진행하였다. 온라인 사전 설문조사를 통하여 모집된 응답자 중 1차적으로 선정된 면담 참가자의 수는 모두 23명이었다. 그러나 후속 연구 참가 희망자의 거주 지역, 면담 참여 가능 일시, 후속 연구에 대한 참여 의사 변경, 그리고 예고 없는 연락 두절 및 지연과 같은 문제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선발되어 연구 면담에 참가한 사람의 수는 총 9명이었다. 본 면담에 앞서 수행하였던 예비 면담에 참가하였던 2명의 참가자도 이와 동일한 절차로 선정되었다.

### 연구자의 기대와 편견 및 처리

본 연구의 합의팀원은 자료 수집 및 분석에 앞서 연구 결과에 대한 각자의 기대와 편견을 독립적으로 기록하고 면담 과정과 분석 과정에서 이러한 기대와 편견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공통적인 기대로는 본 연구를 통하여 동성애적 지향성을 지닌 남성이 경험하는 사회불안의 양상을 보다 더 실제적으로 살펴볼 수 있고 이들이 겪은 사회불안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하는 사회적 지지 증가

장 일반적인 특성이 무엇인지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 있었다. 더불어, 만일 면담을 진행한 연구자가 이러한 기대를 면밀하게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면담을 진행한다면, 연구자 본인이 듣고 싶은 내용만을 듣고자 면담의 자연스러움을 저해하면서 특정한 맥락으로 답변을 유도할 수 있고 향후 분석 과정에서 참가자의 응답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 토의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그 밖에도 동성애적 지향성을 지닌 성인 남성에게 사회불안과 관련된 질문을 하는 바, 면담 전 이와 관련된 적절한 설명을 참가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면, 참가자가 자신의 사회불안 경험을 동성애적 지향성에 오귀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논의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합의팀원 중에 한 명은 연구계획 단계에서는 관여하지 않고 분석 과정에서부터 참가하여 관련 선행연구에 영향을 받지 않고 최대한 객관적인 견지에서 자료를 합의적으로 분석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자료 수집

본 면담은 국내 성소수자 인권 단체 세 곳을 통하여, 두 단계에 걸친 온라인 모집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최종적으로 선발되어 본 연구에 참가한 면담 대상은 동성애적 지향성을 지닌 성인 남성 9명이었다. 면담은 사생활이 보장되는 조용한 사설 모임 공간에서 개인당 약 100분에 걸쳐 진행되었다. 본 면담의 참가자 전원은 면담 시작에 앞서 연구 윤리에 대한 서면 동의서와 연구 참여비 수령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자발적으로 서명하였다. 본 면담에 앞서 수행한 예비 면담도 이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었다. 최종적으로 수집

된 자료는 참가자의 기본적 인적 사항, 자기 보고식 Liebowitz 사회불안 척도 점수, 그리고 면담 녹음 파일을 글로 옮긴 전사록이었다.

### 자료 분석 및 감수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3명으로 구성된 합의팀이 합의적 질적 연구 방식을 사용하여 면담 녹취록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합의적 질적 연구 방식은 다른 질적 방법론에 비하여 그 절차가 상대적으로 더 표준화되어 있고, 다수의 분석자 간 합의를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기 때문에 체계성 및 객관성의 측면에서 장점을 갖는 귀납적 분석 방법이다(Hill, 2012; Hill et al., 1997, 2005).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녹음된 면담 내용을 전사한 것으로, 본 면담에 참가한 9명의 사례가 분석 대상에 포함되었다. 전사록의 분석은 3명으로 구성된 합의팀에 의하여, 합의적 질적 연구 방법에 따라 이루어졌다. 자료의 질적 분석은 영역(domain)과 하위 영역(sub-domain)을 결정하는 과정, 전사록의 핵심 내용을 축약하여 핵심 개념(core idea) 및 범주(category)를 구성하는 과정, 그리고 교차 분석(cross-analysis)을 수행하고 감수를 받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거침으로써 달성되었다.

**영역 및 하위 영역의 결정.** 초기영역은 면담 질문에 대한 참가자의 응답 내용에 근거하여 구성되었다. 각 영역과 하위 영역은 합의적 질적 분석 과정을 거쳐 수정되었으며, 합의팀의 동의하에 최종적으로 결정된 영역과 하위 영역의 수는 각각 2개와 9개에 해당하였다.

**핵심 개념의 추출 및 범주의 구성.** 합의

팀은 개별적으로 분석의 대상인 전사록을 정독하고, 핵심이 되는 생각의 단위를 요약하여 핵심 개념을 추출하였다. 합의팀원 간에 일치하지 않았던 핵심 개념은 모두 논의 과정을 거쳤고, 필요시 수정 후 합의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구성된 범주의 수는 총 24개였다.

**교차 분석 및 감수.** 감수자는 상담 및 임상심리 전공 교수 중 한 명으로, 상당수의 합의적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던 경험이 있었다. 감수자의 피드백에 기반을 두어 핵심 개념을 정교화하고, 이를 알맞은 범주에 배치하는 교차 분석 및 감수 과정을 통하여 8개에서 9개 사례에 해당하는 핵심 개념을 일반적(general), 전체 사례의 절반 이상인 5개에서 7개 사례에 해당하는 핵심 개념을 전형적(typical), 그리고 2개 이상에서 4개 이하의 사례에 해당하는 핵심 개념을 변동적(variant)으로 분류하였다(Hill et al., 2005). 1개 사례 이하에 해당하는 범주는 과대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하고자 교차 분석에서 제외하였다(Hill, 2012).

## 결 과

본 연구의 참가자 9명과 이들이 경험하는 사회불안 및 사회적 지지에 대한 면담 전사록을 합의적 질적 연구 방법에 따라 교차 분석한 결과, 사회불안과 사회적 지지의 2개 영역이 도출되었고, 그에 따른 9개의 하위 영역과 24개의 범주가 최종적으로 구성되었다. 자세한 결과는 영역에 따라 표 2와 표 3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문맥상 의미 파악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면담 내용에 대하여서는 괄호를 사

표 2. 동성애적 지향성을 지닌 남성의 사회불안에 대한 면담의 교차 분석 결과

영역	하위 영역	범주	응답 빈도
사회불안	유발 상황	대인 관계 상황	일반적(9)
		수행 및 평가 상황	전형적(7)
	경험 기계	대인 갈등에 대한 두려움	일반적(8)
		수행 및 평가에 대한 두려움	전형적(6)
		성적 지향으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배척에 대한 두려움	전형적(5)
	반응	행동적 반응	전형적(4)
		생리적 반응	변동적(2)
	대처	개인적 대처	일반적(9)
		증상적 대처	일반적(9)
		사회적 대처	변동적(4)

용하여 의미 전달을 돕고자 하였다.

#### 영역 1: 사회불안

본 연구의 합의팀은 면담 참가자의 응답을 바탕으로 하여 사회불안 영역을, 사회불안을 유발하는 특정 상황, 사회불안을 경험하는 기계, 사회불안에 대한 반응, 그리고 사회불안을 유발하는 상황에 대한 대처의 하위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제한된 지면으로 인하여 범주와 관련된 면담 내용은 선택적으로 제시하였다.

##### 사회불안을 유발하는 특정 상황

본 연구의 참가자는 사회불안을 유발하는 특정 상황이 존재한다고 보고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불안을 유발하는 상황은 대인 관계 상황 범주와 수행 및 평가 상황 범주로 구분되었다. 전자의 범주에는 아웃팅(outing: 성소수자 본인이 자신의 성적 지향이 공개되지 않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타인이 이를 공개하

는 행동)을 당할 수 있는 상황, 특정인을 대면하는 상황, 타인과의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친목 모임 상황 등이 해당되었다. 후자의 범주에는 발표, 퍼포먼스, 시험, 그리고 면접을 수행하는 상황 등이 포함되었다.

[대인 관계 상황] “부모님이 알게 되는 거요. 그거는 상당히 좀 불안해요. <중략> 아무래도 부모님 세대에서는 이해를 못할 거 같아요. 제가 동성애자라는 거 자체를 이해를 못 하고 병적으로 생각을 하실 거 같은데, 그게(자신의 성적 지향성이 부모님께) 알려져 버리면 상황이 어떻게 들어질지 저는 잘 상상이 안 돼요.” (사례 #5)

[대인 관계 상황] “그 애죠. 개가 복학을 같이 했는데, O학번 여자애들한테 말했으려나? 약간 이런 생각. <중략> 그래서 뭐가, ‘재넌 알고 있겠지?’ 이런 불안감?” (사

례 #9)

[수행 및 평가 상황] “오히려 사람들이 많은 데서 대하는 것보다, 테스트 같은 게 저는 좀 많이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많은 적든 간에 편하게 말하는 자리는 괜찮은데, 면접이라거나 그런 데에서는 저는 좀 불안한 것 같아요.” (사례 #6)

**사회불안을 경험하는 기계**

본 연구의 참가자는 타인과의 갈등에 대한 두려움, 자신이나 자신의 수행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성적 지향성으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이나 배척을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사회불안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대인 갈등에 대한 두려움 범주에는 아웃팅을 당하여 상대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야기되거나, 앞으로 계속 볼 사람이기 때문에 신경이 쓰이는 등의 내용이 해당하였다. 자신이나 자신의 수행이 부정적으로 평가될 것에 대한 두려움 범주에 해당하는 내용으로는 자신의 수행 실패로 인한 타인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자신이 사회적으로 부족한 사람으로 평가될 것에 대한 두려움 등이 포함되었다. 자신의 성적 지향성 때문에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거나 배척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에 대하여서는 자신의 동성애적 지향성이 밝혀짐으로써 대학 기숙사에서 쫓겨나가거나,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되거나, 군에서 불명예 전역과 같은 불이익을 당하는 것에 해당하는 내용이 확인되었다.

[대인 갈등에 대한 두려움] “모르는 사람이면 그냥 안 보면 그만인데 안 친해도 분명히 계속 보게 될 사람이라서, 그래서

신경 쓰는 거죠.” (사례 #7)

[대인 갈등에 대한 두려움] “저는 일반적인 남자애들이랑의 갈등은 신경이 안 쓰이는데 성소수자인 남자애들이랑의 갈등이 신경 쓰인다든지...” (사례 #4)

[수행 및 평가에 대한 두려움] “연습이 충분히 안된 상태에서 그런 걸 남 앞에서 보여 준다는 거 자체가 불안하긴 하죠. 실수할까봐 불안한 게 가장 큰 거 같아요. <중략>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잘 못하는데 제대로 준비도 안 했는데 저렇게 해봤자 좋을 게 없을 텐데 이런 식으로 느낄까봐.” (사례 #5)

[수행 및 평가에 대한 두려움]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많이 들어온 게, 이런 사람들이랑 결혼하지 마라, 결혼해서 손주 좀 보여줘라,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많이 들었고, 주위 사람들이랑 얘기해도, “나는 언제 결혼할 거야.”, “어떤 사람이 좋아.” 그리고 실제로 결혼한 분들도 많이 얘기를 듣고, 그게 당연히 되는 사회고. 그런데 제 성향이 결혼을, 결혼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성향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갈등이 있죠. 만약 (제가) 결혼을 못 하게 된다면, 제가 들었던 말들은 실현되지 못할 거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뭔가 부족한 부분으로 인식되지 않을까. 그런 거죠.” (사례 #3)

[성적 지향으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배척에 대한 두려움] “저를 모르는 사람이

(내가) 게이인 걸 알고서 비난을 한다든지, 장차 나중에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제가 게이라는 거를 들켜서 제가 하려는 게 막힌 다든지, 이런 게 제일 불안한 것 같아요.” (사례 #2)

[성적 지향으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배척에 대한 두려움] “누가 아프면 누가 보호자 신분으로 오잖아요. 보통 일반 사람들은 가족이 와서 하는데, 이쪽 사람들은 내 애인이 왔는데, 이 사람은 내 배우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그거를, 이 사람에 대해 보호자를 증명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한대요. 그래서 그런 게 좀 그럴 수도(불안할 수도) 있겠다.” (사례 #9)

#### 사회불안에 대한 반응

본 하위 영역에서는 행동적 반응 범주와 생리적 반응 범주가 도출되었다. 행동적 반응은 전형적 범주로 나타났는데, 참가자들은 사회불안을 경험하는 상황에서 목소리가 작아지거나, 시무룩하여지거나, 타인과의 시선 맞춤이 어려워지거나, 말이 꼬이고 긴장되는 반응이 나타난다고 응답하였다. 따로 범주로 구분되지는 않았지만, 한 참가자는 사회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자살사고를 경험하였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수행 상황에 처하였을 때 얼굴이 붉어지거나, 군대에서 아웃팅을 당할 것 같은 상황에서 불면과 같은 생리적 반응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생리적 반응] “얼굴이 붉어지겠죠. 식은땀 나고.” (사례 #7)

[행동적 반응] “발표를 하면서 준비를 해도 많이 떠는데, 준비가 안 되어있으면 그 때 조금 다른 사람들 시선 보는 게 좀 힘들어지고 말이 잘 안 나와요.” (사례 #8)

#### 사회불안을 유발하는 상황에 대한 대처

본 연구의 참가자가 보고한 사회불안 유발 상황에 대한 대처와 관련하여 개인적 대처, 증상적 대처, 그리고 사회적 대처 범주가 도출되었다. 특히, 개인적 대처는 동성애적 지향성의 은폐와 적극적 행동을 통한 대처로 세분되었다. 개인적 대처 중 동성애적 지향성의 은폐에는 동성애적 지향성을 부인하기, 이성애자로 가장하기(pretension), 지어내기의 세 가지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적극적 행동을 통한 대처에는 양해를 구한 후 재수행하기, 모의실험하기(simulation), 대비하기, 공개적으로 동성애적 지향성을 지닌 개인을 지지하는 발언하기, 독서하기, 물리적으로 제지하기, 그리고 양값음의 일곱 가지 내용이 해당하였다. 증상적 대처는 정신장애진단통계편람(APA, 2013)에 명시되어 있는 사회불안의 행동적 증상을 토대로, 불안한 상황을 회피하거나 참고 견디는 등의 대처를 포함하였다. 사회적 대처에는 친구와 이야기하기, 상대를 사회적으로 배척하기, 상대를 내집단으로 초대하기, 선망하는 면을 가진 연인을 찾기, 그리고 위장 교제 혹은 위장 결혼이 해당하였다.

[개인적 대처: 동성애적 지향성의 은폐] “일반 사람인 척 코스프레(costume play)를 한다고 얘기하는데, 최대한 그거를 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아, 재 좀 게이 같다.”라는 느낌 안 받게 하는 것밖엔 없는 것 같아요.” (사례 #2)

[개인적 대처: 적극적 행동을 통한 대처] “저는 웃어넘기는 거 같아요. 긴장은 원래 하고 있었는데 실수해버리면 탁 막히니까 죄송하다고 말씀 드리거나 아니면 이제 제가 긴장을 해서 좀 떨었으니 죄송하지만 다시 시작할게요. 라는 식으로 해서 얘기를 다시 시작하거나 아니면 정말 큰 실수를 했으면 그냥 웃어넘기는? 죄송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 같아요.” (사례 #5)

[증상적 대처] “아빠랑 농담하거나, 피하죠, 일단은. 일단 나가죠, 그냥. 무슨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그래? 아, 뭐, 별로. 하면서 샤워를 한다거나 담배 피우러 나가거나 친구랑 전화를 하는.” (사례 #1)

[증상적 대처] “걱정을 하는데, 그 걱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걸 피하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 내가 불안한데 어떡하지.’ 그냥 그 시간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사례 #2)

[사회적 대처] “제가, 여잔데 여자를 좋아하는 그런 친구가 한 명 있거든요. 사실 예전에 동성애자인 걸 걸릴 뻔한 적이 있는데, 그 친구랑 저랑 지금 집안에서 보면 사귀게 된, 그런 친구 한 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그렇게 그런 건 없는 거 같아요. 조심스럽긴 한데, 애가 있으니까 뭔가 좀 안정되는 느낌? <중략> 개네 부모님은 이제 phobia시거든요, 정확히. 그러셔서 저 사귀다는 거 알고 나서는 애가 뭘 하든 상관을 안 하는데 그 여자애가 약간 슷컷 같은 거 좋아하고 보이시한 걸 좋

아하는 애니까 그런 걸 하면 엄청 싫어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저랑 사귀다는 걸 아니까, 그런 걸 하더라도 이제 너의 개성이 지 이런 식으로 가니까, 서로 관계가 좋아지게 되니까, 아무래도 서로 계속 이렇게 지내자 라는 식으로 말이 됐죠.” (사례 #5)

[사회적 대처] “학교 애들이랑 모임은 있거든요. 소수자들 모임이 있어요. <중략> 그런 모임에 참석을 안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좀 조심하는 편이죠. 아니면 우리 쪽으로 끌어오든가.” (사례 #8)

## 영역 2: 사회적 지지

### 사회적 지지의 기능

사회적 지지의 기능 영역을 분석한 결과, 본 연구의 참가자들이 보고한 사회적 지지의 기능 유형으로는, 위로와 같은 정서적 지지, 자신의 동성애적 지향성을 알고서도 그것을 자연스럽게 여기며 수용해주는 등의 섹슈얼리티 관련 지지, 함께 시간을 보내며 활동하는 등의 교우적 지지,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등의 정보적 지지, 그리고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여 주는 등의 도구적 지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지지] “가장 많이 도움이 됐던 건 애인인 거 같아요. 다 힘든 일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그러면서 힘들어하면 직접적으로는 도움을 못 줘도 토닥토닥 해주는 것만으로도 크게 도움이 돼 가지고.” (사례 #7)

표 3. 동성애적 지향성을 지닌 남성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면담의 교차 분석 결과

영역	하위 영역	범주	응답 빈도
사회적 지지	기능	정서적 지지	전형적(7)
		섹슈얼리티 관련 지지	전형적(5)
		정보적 지지	변동적(3)
		교우적 지지	변동적(3)
		도구적 지지	변동적(2)
	관계	친구, 동료 및 기타	일반적(9)
		연인	변동적(3)
		단체	변동적(3)
	특성	가족	변동적(2)
		동성애적 지향성에 대한 이해 및 수용	일반적(9)
	영향	동성애적 지향성을 지닌 개인에 대한 보호	변동적(4)
		심리적 적응 전반에 도움이 됨	전형적(7)
	대상에 대한 접근 경로	온라인	일반적(9)
		오프라인	전형적(5)

[섹슈얼리티 관련 지지] “저랑 같이 기숙사 살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제가 동성애잔데 그 친구들이 저의 연애 문제를 같이 얘기를 해주고, 제가 얘기를 했을 때도 “그럴 수 있지 무슨 상관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친구들을 만났을 때 그랬던 거 같아요. 그냥 “나 동성애자야.”라고 얘기를 했을 때 되게 놀라거나, 혹은 “헉!” 뭐 이런 반응이 아니라, 되게 덤덤하고 자연스럽게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듯이 받아들일 수 있는 친구들.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마치 똑같은 사람인 것 같은 기분을 받는 느낌 있잖아요.” (사례 #4)

[섹슈얼리티 관련 지지] “비밀을 풀어놓

은? 이제 솔직할 수 있는. 저한테 비밀 중에서 제일 큰 게 그거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지지해주는 사람이면, 내 모든 거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이에요. 일단은.” (사례 #6)

[교우적 지지] “사실은 개네가 그렇게 해준 건 없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약간의 관심을 가져준 것만으로도 되게, 말해주고, 같이 과제 같은 거 해주고, 공부 같이 하고, 이런 것만 해도 힘이 엄청나게 되죠, 사실은.” (사례 #9)

[정보적 지지] “어플이나 커뮤니티 같은 걸 통해서 정말 많이 알게 되었죠. 이쪽

문화의 생활을 알 수 있으니까 내가 어떤 식으로 해야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어떻게 놀 수 있는지 윤곽이 잡힌다고 해야 하나? 그러면 그런데 한 번씩 가보고, 만나 보고, 그런 거에 맛을 들리니까 이제는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불안감이 덜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을 많이 만나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사람 때문에 불안감은 없어요.” (사례 #8)

[도구적 지지] “저는 자울고라는 곳에 입학을 하고 싶었거든요? <중략> 근데 이 고등학교를 가려고 하면 저희 집 재정 상태로는 어렵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그냥 저 이런 게 있어서 가고 싶은데 못 갈 거 같다고 하니, 선생님이 다 찾아보신 거예요. 저희 집 재정 상태 이런 걸 다 찾아보시면서, 가도 내가 학비를 낼 필요는 없으니까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갔는데, 정말로 학비도 다 면제고, 거기서 만난 담임 선생님도 급식비 같은 것도 다 없애 주시고, 장학금이랑 연계를 해서 학비도 안 내는데, 매달 30만원씩 지원도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주변에서 긍정적으로 도움을 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사례 #5)

### 사회적 지지 대상과의 관계

본 연구의 참가자들은 다양한 관계에 속한 사람들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았다고 응답하였는데, 그 중 가장 많이 보고된 지지 대상은 친구, 동료 및 기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밖에 사회적으로 지지가 되었던 사람들로서는 연인, 가족, 그리고 단체가 있었다.

[친구, 동료 및 기타] “그 때가 그래도 다행히 말할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으면 정말 정말 힘들었을 텐데, 한 학년 위의 선배 중에 한 명이 동성애자인 형이 한 명 있었거든요. 그 형한테 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다보니 좀 그나마 많이 의지하고 힘이 되고 그랬었어요.” (사례 #6)

[가족] “사실 가족이죠. 가족한테 (내 동성애적 지향성에 대하여서) 말은 못했는데, 말은 못 드렸는데 (내가) 뭔가 힘든 걸 내비치니까, 그래도 지지를 해주니까. 사실 가족이 제일 큰 지지였죠.” (사례 #9)

### 긍정적으로 지각되는 사회적 지지의 특성

사회적 지지가 긍정적으로 지각되는 특성은 동성애적 지향성에 대한 이해 및 수용 범주와 동성애적 지향성을 지닌 개인에 대한 보호 범주로 세분되었다. 먼저 전자에 해당하는 범주에는 동성애를 혐오하지 않는 면, 동성애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는 면, 동성애를 이성애처럼 자연스럽게 대하는 면, 동성애에 대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쇄신하는 면, 동성애에 대하여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면, 동성애와 동성애적 지향성을 지닌 개인의 생활양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면, 동성애에 대한 편견이 없는 면, 상대방이 동성애적 지향성을 지닌 것, 그리고 동성애에 대하여 지지적인 말을 해주는 면 등이 포함되었다. 이에 더하여, 3명의 참가자는 해당 특성이 지지적으로 지각되는 이유를 설명하기도 하였다. 한편, 동성애적 지향성을 지닌 개인에 대한 보호 범주에는 동성애적 지향성을 지닌 개인을 개인적·사회적·제도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이



해당하였다.

[동성애적 지향성에 대한 이해 및 수용] “(남자) 동성애자는 다 (모든) 남자(들) 좋아하겠지.”,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애들한테도 얘기 안 하게 되고. 그냥 거의 ‘지지를 받는다.’라는 느낌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이쪽이 다른 걸 아는(동성애적 지향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애들이 좋은 거 같아요.” (사례 #5)

[동성애적 지향성에 대한 이해 및 수용] “뭔가 특별한 대우나 지지를 바란다기보다는 그냥 똑같은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것뿐이지, 동물을 좋아한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지지라기보다는 똑같은 것 같아요. 대부분 장애인들이 불평하는 게 그런 시선을 보내니까. 어떻게 하나. 동정 어린 시선이니까. 동정 받을 게 아닌데. 그런 게 되려, 딱히 지지 이런 걸 받고 싶다가보다는 당연하지. 이렇게 넘어가는 느낌.” (사례 #9)

[동성애적 지향성을 지닌 개인에 대한 보호] “저는 개인적으로 그제(차별금지법이) 통과됐으면, 법적으로라도 보호를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 되니까 좀 불안하기도 하죠. <중략>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앞으로는 그런 사람들이(근거 없이 성소수자를 비난하는 특정 종교인들이) 그런 식으로(성소수자가 사탄, 에이즈 전파의 주범이라는 식의) 말을 하지 못하게 입이라도 막을 수 있으니까. 그제(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불안)에 대해서는 되게 안정적일 것 같아요.” (사례 #2)

### 사회적 지지의 영향

사회적으로 지지 받았다는 느낌은 참가자의 심리적 적응 전반에 영향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한 내용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는 참가자의 사회불안 및 우울감을 감소시키며, 참가자로 하여금 심리적 충격으로부터 재정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신의 성소수자적 지향성을 타인에게 드러낼 수 있는 용기를 주었으며, 미래의 삶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심리적 적응 전반에 도움이 됨] “마치 저는 소수자고, 세상에 혼자인 거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은 물론 저와 같은 소수자는 아닐지라도, 그 친구들이 되게 덤덤하게 받아들여주는 게, 지지한다기보다는 내가 이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해야 되나요. 내가 소수자지만, 그 순간 사람들하고 똑같아지고 싶어 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언 유별나. 언 특이해. 이런 게 아니라 나도 그냥 똑같은 사람인 거 같은 기분 때문에 좋았던 거 같아요. <중략> (자신의 성적 지향성을) 알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친구들끼리 편하게 연애 얘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오는, 그니까 그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이미 이들이 나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거를 전제를 깔고 있잖아요? 그런 전제에서 오는 안정감이랄까. <중략> 제 얘기를 하는 게 편해지고. 제 얘기를 하는 게 전에는 약간 두려운 면도 있었는데 그런 게 없어졌던 거 같아요.” (사례 #4)

### 사회적 지지 대상에 대한 접근 경로

참가자들은 본인 혹은 동성애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주변인이 사회적으로 지지가 되는 대상을 만나는 경로에 대한 다양한 응답을 제공하였다. 이 경로는 온라인 범주와 오프라인 범주로 구분되었는데, 모든 참가자가 온라인을 통하여 지지적인 대상을 만나는 경로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오프라인에서 지지적 대상을 만난다는 응답 역시 전형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온라인 접근 경로는 크게 성소수자 관련 위치 기반 어플리케이션,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분류되었고, 오프라인 접근 경로는 크게 대학교 내 성소수자 동아리나 대학 내 성소수자 친목 모임, 동성애 관련 일터, 성소수자가 많이 모인다고 알려진 카페 혹은 클럽이나 바(bar), 성소수자 관련 인권 단체, 지인, 그리고 가족을 통한 경로로 분류되었다.

[온·오프라인] “처음에는 원래 아는 사람을 통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어플도 있고, 포털사이트의 카페나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지역적으로 이쪽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들이 있어요. 우연히 만나는 경우도 있고.” (사례 #6)

[온·오프라인] “다른 이쪽 친구들 만난 건 거의 대부분이 학교에서 학교 모임에서 <중략> 저희 학교는 동아리는 아니고요. 친목 모임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다른 학교는 다 공식으로 인정받은 동아리고 그런 학교들이 있는 거 같은데 저희 학교는 그건 아닌 거 같아요. 그냥 친목 모임이죠. 그 모임에 가입하면서 사람들이랑 친해지면서 거기서 제일 많이 사귀었어

요.” (사례 #7)

### 논 의

본 연구는 동성애적 지향성을 지닌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이들이 경험하였다고 보고한 사회불안과 사회적 지지의 특성을 합의적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하여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 중에서도 본 연구의 초점은 참가자가 보고한 사회불안 및 이를 완충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그 경험 기제에 대한 탐색이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참가자를 사회불안으로부터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치료적 개입에 대한 이론적, 실제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분석 결과, 본 연구의 참가자 전원은 여러 대인 관계 상황과 평가 및 수행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불안감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사회불안을 경험하였던 상황과 그 경험 기제에 대한 내용을 보다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 참가자들은 아웃팅을 당할 수 있는 상황, 특정인을 대면하는 상황, 타인과의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발표나 면접 상황에서 불안감을 경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타인과의 갈등, 동성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포함하는 자신 또는 자신의 수행에 대한 타인의 부정적 평가, 그리고 자신의 성적 지향성으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이나 배척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와 같은 불안감을 경험하였다는 설명을 제공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의 참가자가 경험하였다고 보고한 사회불안 속에 사회불안의 일반적 특성과 더불어 동성애적 지향성과 관

런된 특수한 경험 기제가 공존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의 경험은 유기적으로 서로 관련되어 있어, 일반적 사회불안과, 동성애적 지향성과 연관된 사회불안의 특성이 명확하게 구분되기 보다는 함께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았다. 전자의 예로, 타인 앞에서 수행하거나 평가 받는 상황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불안감을 느낀다는 설명은 일반적 사회불안에 대한 기존의 설명과 부합한다. 왜냐하면 사회불안의 본질적 특성은 사회적 상호 작용 상황이나 수행 상황에서 타인이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에 대한 강렬한 두려움이기 때문이다(Leary, Kowalski, & Campbell, 1988; Schlenker & Leary, 1982). 그러나 상대방이 동성애적 지향성을 지닌 개인에 대한 혐오나 편견이 담긴 시선으로 자신을 볼까 두렵다거나, 동성애적 지향성으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 또는 배척 때문에 불안하다는 설명은 일반적 사회불안에 적용되는 기제로만 설명되기에는 불충분하다. 왜냐하면, 동성애적 지향성을 지닌 개인에 대한 혐오나 편견이 담긴 시선은 이들에 대한 성적 낙인(sexual stigma)이나 사회적 편견(social prejudice)의 내용 및 그 강도와 같은 맥락적 요인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Herek, 2004).

이와 같은 사회적 편견과 그 영향에 대한 이해를 신장시키기 위하여서는 해당 사회의 문화적 특성과 이것이 개인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가 동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동아시아의 유교문화권 국가로(House et al., 2004; Schwartz, 1992), 개인의 바람이나 목표의 추구보다는 집단의 추구 및 목표를 더 우선시하는 집단주의적 사회이다(조금호, 2003a; Markus & Kitayama, 1991; Triandis,

1994). 따라서 한국사회는 개인의 욕구에 따라 타인이나 환경을 통제하기보다 자기를 사회나 환경적 상황에 맞추는 것을 더 바람직하게 여기는 경향이 강하고(조금호, 2003b), 개인보다 가족을 중심으로 한 체면 유지 및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효의 가치가 우선시되어 개인주의적 사회보다 동성애적 표현이나 생활양식이 허용되기 더 어려운 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더하여 동성애 그 자체를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 가령 동성애적 지향성을 지닌 개인은 질병에 걸린 것이며, 성적으로 문란하고, 이들이 양육하거나 가르치는 아동은 동성애적 지향성을 지니게 될 것이라는 등의 잘못된 성적 낙인이 만연한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은 이러한 편견이 없는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에 비하여 그들을 더 혐오하는 반응을 보이거나 차별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동성애적 지향성이 타인에게 의도치 않게 알려졌을 때 받게 되는 사회적 차별이나 불이익이 존재할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강병철과 하경희(2005)에 따르면,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응답한 남녀 청소년 및 초기 성인 104명 중 52.9%가 아웃팅을 당한 후에 언어적 모욕을 당하였으며, 25%는 신체적 폭력의 위협을 당하였고, 15%는 신체적으로 구타를 당하였으며, 이들 중 3.8%는 세 차례 이상 구타를 경험하였다. 이와 같이 국내 사회에는 동성애적 지향성을 지닌 개인을 포함하는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성적 낙인, 그리고 폭력이 존재하며, 이는 성소수자의 사회불안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안의 제정, 성적 소수자 지향성에 대한 교육 과정의 추가와 같은 사회·제도적 대안이 마련된다면, 차별이

나 편견, 또는 폭력으로 인하여 유발된 성적 지향성 관련 사회불안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한편 사회불안에 대한 참가자의 반응 양상은 크게 행동적 반응과 생리적 반응으로 구분되었다. 행동적 반응에는 사회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목소리가 작아지거나, 의기소침하여 지거나, 타인과의 시선 맞춤이 어려워지는 것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사례 수의 부족으로 인하여 교차 분석 결과표에 개별 범주로 구분되지는 않았으나 아웃팅을 당한 후 자살 사고를 경험하였다는 보고도 존재하였다. 그 밖에 생리적 반응에는 불면이나 식은땀을 흘리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동성애적 지향성으로 인한 사회불안의 경우에는 불면이나 자살 사고와 같이 보다 심각한 반응과 관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성소수자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47배 더 많이 자살을 시도하며, 더 높은 자살 행동 위험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강병철, 하경희 2005; 공성욱, 오강섭, 노경선, 2002; 양경미, 방소연, 김순이, 2012; Haas et al., 2011; King et al, 2008)를 고려할 때 일면 이해가 된다. 그러나 사회불안과 자살 사고 간 관련성이나 그 영향 관계를 조명할 수 있는 관련 연구가 제한적인 실정이므로, 향후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사회불안을 유발하는 상황에 대한 대처는 크게 개인적 대처, 증상적 대처, 그리고 사회적 대처로 분류되었다. 이 중 개인적 대처는 다시 동성애적 지향성의 은폐와 적극적 행동을 통한 대처로 나뉘며, 전자는 부인, 가장, 지어냄과 관련된 핵심 개념을, 후자는 양해를 구하고 재수행, 모의실험, 대비, 공개적 발언,

독서, 물리적 제지, 그리고 양값음과 관련된 핵심 개념을 포함한다. 증상적 대처에는 회피와 견딜이 도출되었으며, 이는 정신장애진단 통계편람(APA, 2013)이 제시하고 있는 사회불안의 대표적 증상과 일치한다. 사회적 대처의 범주에는 친구와 이야기, 사회적 배척, 내집단 초대, 선망하는 면을 가진 연인의 탐색, 그리고 위장 교제 및 위장 결혼과 연관된 핵심 개념이 포함되었다. 특히 대처 방식으로 동성애적 지향성을 지닌 친밀한 여성과의 위장 교제를 선택한 참가자의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결혼에 대한 사회적 압력을 느꼈다고 응답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에서 수행한 조사 연구에서 미혼 남성의 약 25%와 미혼 여성의 약 48%가 결혼은 해도 안 해도 무방하다거나 결혼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응답하였다는 결과를 볼 때 현대의 미혼 성인 사회에서 결혼을 당위적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결혼은 자식으로서 다하여야 하는 의무이자, 인간으로서 거쳐야 할 통과 의례로 여겨져 왔다는 점(문소정, 1994)과 참가자의 부모가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1970-80년대에 대개의 남녀 대학생이 결혼은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응답한 연구 결과(유영주, 1976; 정현아, 1984)를 고려할 때 본 연구의 참가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나 친척으로부터 결혼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본 연구의 참가자가 성적 지향성과 관련하여 경험할 수 있는 사회불안의 양상이 생애발달단계에 따라 변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사회적 지지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다양한 기능적 특성을 포함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도 사회적 지지는 여러 기능 범주를 갖

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가자가 면담 실시 시점까지 받았다고 보고한 사회적 지지의 기능적 유형은 정서적, 섹슈얼리티 관련, 정보적, 교우적, 그리고 도구적으로 구분되었다. 사회적 지지를 받았던 대상에 대한 분석 결과, 친구, 동료 및 기타 범주가 일반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또래 집단이 이들에게 주는 사회적 지지가 중요하며, 이들이 또래 집단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지지에 의존하고자 하는 경향성에 대하여 보고한 기존의 연구 결과(Beeler, Rawls, Herdt, & Cohler, 1999; Dorfman, et al., 1995; Muñoz-Plaza, Quinn, & Rounds, 2002)와 같은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다. 문화적으로도, 가족 중심으로 대표되는 집단주의적 사회에 속하는 우리나라에서 동성애적 지향성을 지닌 개인이 자신의 성적 지향성과 관련하여 가족의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점은 개인의 사회적 지지 체계에 행사하는 영향력의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의 참가자가 지지적이라고 답한 사회적 지지의 특성은 크게 동성애적 지향성에 대한 이해 및 수용 범주와 동성애적 지향성을 지닌 개인에 대한 보호 범주로 구분되었다. 전자의 범주에 포함되는 내용에는 동성애적 지향성을 지닌 개인을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대하는 것, 자신과 상대방이 동성애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는 것, 상대방이 동성애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동성애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이 있었다. 이와 같은 면은 참가자의 성적 지향성과 밀접하게 연관된 범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동성애적 지향성에 대한 이해 및 수용 범주는 참가자 전원의 사례가 포함되어, 일반적 범주로 추출되었다. 후자의 범주에는 동성애적 지향성의 공

개를 개인·사회·제도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이 해당되었다. 연구 결과를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동성애적 지향성을 이해·수용하고 보호하는 면은 본 연구의 참가자가 대상이나 대상의 지지를 긍정적이라고 인식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보인다. 즉, 이들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지지가 사회불안을 비롯한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보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이들의 성적 지향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수용이 전제되는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동성애적 지향성에 대한 이해 및 수용은 단순히 동성애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표현만을 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의 참가자가 성적 지향성과 관련하여 지지받았다고 지각하려면,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에 동성애적 지향성을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여기는 면이 포함될 필요가 있었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의 참가자는 동성애에 대한 바른 지식에 기반을 둔 지지를 긍정적으로 지각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동성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간과하고, 단순히 성소수자를 지지한다는 표현을 하는 것은 지지적으로 지각되지 않아, 사회불안에 대한 보호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더군다나 참가자는 자신의 성적 지향성이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지지적으로 여겨진다고 보고되었다. 따라서 동성애적 지향성을 지닌 개인이 지지적이라고 느끼는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기 위하여서는 우선적으로 성소수자적 지향성의 특성과 그들의 삶의 양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동반하고, 이를 진심으로 수용하면서, 동성애적 지향성을 지닌 개인이 처한 상황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서비스를, 그들의 성적 지향

성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제공된 사회적 지지는 참가자의 정신 건강 전반에 긍정적으로 이바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분석 결과, 사회적 지지가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과 적응 기능에 대하여 갖는 보호적 기능은 사회불안을 감소시키거나 그 영향을 완충하고, 심리적 충격과 우울로부터 참가자를 보호하며, 참가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성적 지향성을 드러내고자 하였을 때 이를 도와주는 동시에 희망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9명의 참가자 중 7명이 사회적 지지를 받았을 당시 사회적 지지 경험으로 인하여 사회불안이 감소하였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사회불안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완충 역할을 강조한 상호적 병합 모형(Combined Reciprocal Model; Stice & Barrera, 1995; Trumbetta, Mueser, Quimby, Bebout & Teague, 1999)과 Leary(1990)의 사회적 배제 이론(Social Exclusion Theory)에서 설명하는 바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사회적 지지가 LGB 개인의 건강, 적응 기능, 그리고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긍정적인 면은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확인되었으나(Grossman, D'Augelli, & Hershberger, 2000; O'Donnell et al., 2002; Rosario, Schrimshaw, & Hunter, 2005; Waller, 2001; Williams, Connolly, Pepler, & Craig, 2005; Zea, Reisen, & Poppen, 1999), 사회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접근 경로를 알지 못하는 경우, 사회적 지지의 획득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의 참가자들은 모두 온라인을 통하여 지지적 대상을 만날 수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온라인상의 접근 경로는 크게 위치 기반 어플리케이션,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소셜 네트워

크 서비스의 세 가지로 구분되었다. 그밖에는 대학 내 성소수자 동아리나 성소수자 관련 친목 모임, 동성애 관련 일터, 성소수자가 많이 모인다고 알려진 카페, 클럽, 혹은 바(bar), 성소수자 관련 인권 단체, 성적 소수자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지인, 그리고 가족과 같은 오프라인 소스(offline source)가 있었다. 그러나 오프라인 소스 역시 일차적으로는 온라인을 거쳐서 접근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면, 대학 내 성소수자 관련 친목 모임의 경우, 먼저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하여 친목 모임의 운영진과 접촉하는 과정을 통하여 가입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경로를 통하여 지지적 관계 형성이 가능한 대상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고무적이나, 개인 정보 보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대부분의 위치 기반 어플리케이션이나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 혹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가입 및 이용에 대한 자격 조건이나 개인 정보 보호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실정이었다. 이와 같은 보안 체계상의 문제가 지속된다면, 무차별 아웃팅이나 혐오 범죄와 같은 악의적 사건이 발생하거나, 이를 두려워하는 성소수자로 하여금 사회적 지지 체계를 얻고자하는 시도를 좌절시킴으로써 성소수자들의 사회불안을 가중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성소수자의 사회불안과 사회적 지지에 관하여 주목할 만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참가자가 보고한 성적 지향성 관련 사회불안 경험은 일반적인 사회불안 기제를 통하여 일부 설명될 수 있었으나, 현재 우리 사회 내에 존재하는 차별이나 편견과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존재하였으며, 국외 연구와

는 다소 다른 양상으로 설명될 수 있었다. 둘째, 본 연구의 참가자가 경험하였다고 보고한 일반적 사회불안 및 성적 지향성 관련 사회불안 수준은 그들이 지지적이라고 지각한 사회적 지지에 의하여 감소되었으며, 특히 후자는 섹슈얼리티 관련 지지처럼 성적 지향성에 특정적으로 부합하는 사회적 지지를 받았을 때 감소되었다는 점이 재확인되었다. 셋째, 참가자들이 가장 지지적이라고 느끼는 사회적 지지의 특성은 상대방이 성적 소수자적 지향성의 본질적 특성과 그들의 삶의 양식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진심으로 수용하면서, 자신이 처한 상황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서비스를, 자신의 성적 지향성이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제공하여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참가자가 지지적인 대상을 만나는 온라인 환경의 중요성과 해결하여야 할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9명의 남성 대학생 참가자로부터 얻은 자료에 기반을 두어 결론을 도출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 결과가 동성애적 지향성을 지닌 남성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본 연구의 참가자가 모두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 집단에서는 본 연구 결과가 타당하게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대학 사회가 상대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편견이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사회에서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사회불안과 사회적 지지는 그 양상이 다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더 다양한 연령 분포를 가진 참가자와 다양한 사회불안 수준을 가지고 있는 참가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사회불안과 사회적 지지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에 이론 및 실제적 의의가 있을 것이다.

둘째, 동성애적 지향성을 지니고 있는 동시에 사회불안 수준이 낮은 남성을 비교 집단으로 선정하여 각 집단별로 사회불안 경험 및 사회적 지지에 대하여 탐색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가자의 사회불안 수준을 감소시킬 수 있는 특정한 요인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특히 본 연구의 참가자가 사회적 지지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집 당시 LSAS-SR에서 30점 이상에 해당하는 사회불안 수준을 나타내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 지지가 사회불안의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 데 관여하는 제3의 변인에 대한 탐색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예컨대 비록 주변의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각된 사회적 편견이 심각한 수준인 경우에 사회적 지지의 보호요인으로서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가 이들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요인에 대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성적 소수자 지향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성적 낙인으로 인한 폭력, 혹은 차별과 같은 심리사회적 변인이 사회불안과 어떤 영향 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더욱 다양하게 수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끌림을 처음 자각한 연령이나 커밍아웃(coming-out: 자신의 성소수자적 지향성을 자발적으로 타인에게 알리는 행동)을 한 시기 등을 참가자 관련 정보로 확인하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가설이나 질문은 포함하지 않았다. 선행 연구(D'Augelli et al., 2006; Friedman, Marshal, Stall, Cheong, & Write, 2008; Floyd & Stein, 2002)에 따르면, 동성애에 대한 성적 끌림을 경험한 시기가 이르고 비교적 어린 연령에 커밍아웃을

할수록 타인으로부터의 괴롭힘을 당하거나 (victimization), 우울이나 자살 등의 심리적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참가자의 성적 지향성 발달 단계와 이들이 경험하는 사회불안 및 사회적 지지의 특성 간의 관련성을 후속 연구를 통해 보다 면밀하게 탐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동성애적 지향성을 지닌 개인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주로 취약성 요인에 중점을 두어온 것에 비하여, 사회적 지지와 같은 보호 요인에 초점을 두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본 연구는 합의적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동성애적 지향성을 지닌 개인이 경험하는 사회불안의 특성과, 이를 완충하는 사회적 지지 특성에 대하여 탐색하고자 하였으며, 이들이 특별히 더 지지적으로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를 보다 더 심도 있게 탐색하였다는 데 연구적 가치가 있다. 또한 지금까지 수행된 성소수자에 관한 연구는 표집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동성애적 지향성을 지닌 개인을 동일 집단으로 취급한 경우가 많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동성애적 지향성을 지닌 남성만을 참가자로 선정함으로써 동질 집단을 구성하였다는 강점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동성애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남성이 지지적 대상과 접촉하는 경로를 탐색함으로써, 사회불안을 경험하는 동성애적 지향성을 지닌 남성에게 대한 치료적 개입에 이론 및 실제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강병철 (2011). 사회적 낙인 인식이 성소수자

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42(2), 381-417.

강병철, 하경희 (2005). 청소년 동성애자의 동성애 관련 특성이 자살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 연구*, 12(3), 267-289.

강진화, 이정애, 오강섭, 임세원 (2013). 한국판 Liebowitz 사회불안 척도: 임상가 평정(Liebowitz Social Anxiety Scale: Clinician Administered)의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2(2), 291-312.

공성욱, 오강섭, 노경선 (2002). 남성 동성애자와 남성 이성애자의 삶의 질과 정신 건강 비교. *神經精神醫學*, 41(5), 930-941.

권석만 (2013). *현대 이상심리학*. 서울: 학지사.

문소정 (1994). 가족이데올로기. *여성한국사회연구회 4회 심포지움*.

송종용, 원호택 (1988).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가 성취과제의 수행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7(1), 21-30.

양경미, 방소연, 김순이 (2012). 대학생의 자살 생각 영향요인. *스트레스研究*, 20(1), 41-50.

여기동, 이미형 (2006). 한국 남성의 동성애 성 정체성 발달과정과 정신건강. *정신간호학회지*, 15(3), 289-298.

유영주 (1976). *한국가족에 있어서의 결혼 연구*. 인하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논문집, 2, 127-150.

정현아 (1984). *여대상의 자아실현성에 따른 결혼관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공호 (2003a). *한국인 이해의 개념틀*. 서울: 나남출판.

조공호 (2003b). 문화성향과 통제 양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2), 85-10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2005년도 전국 결



- 혼 및 출산 동향조사 결과.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 Arlington, VA: American Psychiatric Publishing.
- Antonucci, T. (1985). Social support: Theoretical advances, recent findings, and pressing issues. In I. Sarason & B. Sarason (Eds.), *Social Support: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 (pp. 21-37). Boston, MA: Nijhoff.
- Beeler, J. A., Rawls, T. W., Herdt, G., & Cohler, B. J. (1999). The needs of older lesbians and gay men in Chicago. *Journal of Gay & Lesbian Social Services, 9*(1), 31-49.
- Berghe, W. V., Dewaele, A., Cox, N., & Vincke, J. (2010). Minority Specific Determinants of Mental Well Being Among Lesbian, Gay, and Bisexual Youth.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40*(1), 153-166.
- Bostwick, W. B., Boyd, C. J., Hughes, T. L., & McCabe, S. E. (2010). Dimensions of sexual orientation and the prevalence of mood and anxiety disorders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00*(3), 468-475.
- Caldwell, R. A., & Reinhart, M. A. (1988). The relationship of personality to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use of type and source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6*(1), 140-146.
- Chartier, M. J., Hazen, A. L., & Stein, M. B. (1998). Lifetime patterns of social phobia: a retrospective study of the course of social phobia in a nonclinical population. *Depression and Anxiety, 7*(3), 113-121.
- Clark, D. M. & Wells, A. (1995). A cognitive model of social phobia. In R. Heimberg, M. Liebowitz, D. A. Hope, & F. R. Schneier (Eds.), *Social phobia: Diagnosis, Assessment and Treatment*. (pp. 69-93). New York: Guilford Press.
-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5), 300-314.
- Cohen, S., Gottlieb, B., & Underwood, L. (2000). Social relationships and health. In S. Cohen, L. Underwood, & B. Gottlieb (Eds.), *Social Support Measurement and Intervention: A Guide for Health and Social Scientists* (pp. 3-25).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Cohen, S., & Hoberman, H. M.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2), 99-125.
- Cohen, S. & McKay, G. (1984). Social support, stress and buffering hypothesis: A theoretical analysis. In A. Baum, S. E. Taylor, & J. E. Singer (Eds.), *Handbook of Psychology and Health, 4*, (pp. 253-267). Hillsdale, NJ: Erlbaum.
- Cohen, S., & Will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2), 310.
- Compas, B. E., Wagner, B. M., Slavin, L. A., & Vannatta, K. (1986). A prospective study of life events,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symptomatology during the transition from high school to college.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3), 241-257.
- Crocker, J. (1999). Social stigma and self-esteem:

- Situational construction of self-worth.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5(1), 89-107.
- D'augelli, A. R., Hershberger, S. L., & Pilkington, N. W. (1998). Lesbian, gay, and bisexual youth and their families: disclosure of sexual orientation and its consequence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8(3), 361.
- Dorfman, R. A., Walters, K. L., Burke, P., Hardin, L., Karanik, T., Raphael, J., & Silverstein, E. (1995). Old, sad and alone: The myth of the aging homosexual.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24(1-2), 29-44.
- Doty, N. D., Willoughby, B. L., Lindahl, K. M., & Malik, N. M. (2010). Sexuality related social support among lesbian, gay, and bisexual youth.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9(10), 1134-1147.
- Festa, C. C., & Ginsburg, G. S. (2011). Parental and peer predictors of social anxiety in youth. *Child Psychiatry & Human Development*, 42(3), 291-306.
- Fisher, E. B., La Greca, A. M., Greco, P., Arfken, C., & Schneiderman, N. (1997). Directive and nondirective social support in diabetes manage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4(2), 131-144.
- Floyd, F. J., & Stein, T. S. (2002). Sexual orientation identity formation among gay, lesbian, and bisexual youths: Multiple patterns of milestone experience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2(2), 167-191.
- Friedman, M. S., Marshal, M. P., Stall, R., Cheong, J., & Wright, E. R. (2008). Gay-related development, early abuse and adult health outcomes among gay males. *AIDS and Behavior*, 12(6), 891-902.
- Goffman, S. (1963). *Notes on the Management of Spoiled Identity*.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 Grossman, A. H., D'Augelli, A. R., & Hershberger, S. L. (2000). Social support networks of lesbian, gay, and bisexual adults 60 years of age and older.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55(3), 171-179.
- Haas, A. P., Eliason, M., Mays, V. M., Mathy, R. M., Cochran, S. D., D'Augelli, A. R., Clayton, P. J. (2011). Suicide and suicide risk in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populations: Review and recommendations. *Journal of Homosexuality*, 58(1), 10-51.
- Haemmerlie, F. M., Montgomery, R. L., & Melchers, J. (1988). Social support, perceptions of attractiveness, weight, and the CPI in socially anxious males and female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4(3), 435-441.
- Harlow, H. F., & Harlow, M. L. (1965). The affectional systems. In A. M. Schrier, H. F. Harlow, & F. Stollnitz (Eds.), *Behavior of Nonhuman Primates* (Vol. 2). New York: Academic Press.
- Hart, T. A., & Heimberg, R. G. (2001). Presenting problems among treatment seeking gay, lesbian, and bisexual yout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7(5), 615-627.
- Herek, G. M. (2004). Beyond "homophobia": Thinking about sexual prejudice and stigma in the twenty-first century. *Sexuality Research & Social Policy*, 1(2), 6-24.
- Hill, C. E. (Ed.). (2012). *Consensual Qualitative*

- Research: A Practical Resource for Investigating Social Science Phenomena*.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Hill, C. E., Knox, S., Thompson, B. J., Williams, E. N., Hess, S. A., & Ladany, N. (2005).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An updat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2), 196.
- Hill, C. E., Thompson, B. J., & Williams, E. N. (1997). A guide to conducting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5*(4), 517-572.
- Horowitz, J. M., Simmons, K., Poushter, J., Ponce, A., Barker, C., & Devlin, K. (2013). The Global Divide on Homosexuality. *Pew Global Attitudes Project*, 1-26.
- House, J. S. (1981). *Work Stress and Social Support*. MA: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 House, R. J., Hanges, P. J., Javidan, M., Dorfman, P. W., & Gupta, V. (Eds.), (2004). *Culture, Leadership, and Organizations: The GLOBE Study of 62 Societies*. Sage publications.
- Ingram, K. M., Betz, N. E., Mindes, E. J., Schmitt, M. M., & Smith, N. G. (2001). Unsupportive responses from others concerning a stressful life event: Development of the Unsupportive Social Interactions Inventory.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0*(2), 173-207.
- Johnson, T. P. (1991). Mental health, social relations, and social selection: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2*: 408-423.
- Kessler, R. C. (2003). The impairments caused by social phobia in the general population: implications for intervention.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108*(s417), 19-27.
- Kessler, R. C., Berglund, P., Demler, O., Jin, R., Merikangas, K. R., & Walters, E. E. (2005). Lifetime prevalence and age-of-onset distributions of DSM-IV disorders in the National Comorbidity Survey Replicat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62*(6), 593-602.
- King, M., Semlyen, J., Tai, S. S., Killaspy, H., Osborn, D., Popelyuk, D., & Nazareth, I. (2008). A systematic review of mental disorder, suicide, and deliberate self harm in lesbian, gay and bisexual people. *BMC Psychiatry, 8*(1), 70.
- La Greca, A. M., & Harrison, H. M. (2005). Adolescent peer relations, friendships, and romantic relationships: Do they predict social anxiety and depression?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4*(1), 49-61.
- Lakey, B. (1989). Personal and environmental antecedents of perceived social support developed at college.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7*(4), 503-519.
- Leary, M. R. (1990). Responses to social exclusion: Social anxiety, jealousy, loneliness, depression and low self-esteem.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9*(2), 221-229.
- Leary, M. R., & Kowalski, R. M. (1990). Impression management: A literature review and two-component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107*(1), 34.
- Leary, M. R., Kowalski, R. M., & Campbell, C. D. (1988). Self-presentational concerns and social anxiety: The role of generalized impression expectancie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2*, 308-321.

- Liebowitz, M. R. (1987). Social phobia. *Modern Problems in Pharmacopsychiatry*, 22, 141-173.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2), 224.
- Meyer, I. H. (2003). Prejudice, social stress, and mental health in lesbian, gay, and bisexual populations: conceptual issues and research evidence. *Psychological Bulletin*, 129(5), 674.
- Muñoz-Plaza, C., Quinn, S. C., & Rounds, K. A. (2002).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students: Perceived social support in the high school environment. *The High School Journal*, 85(4), 52-63.
- Nesmith, A. A., Burton, D. L., & Cosgrove, T. J. (1999). Gay, lesbian, and bisexual youth and young adults: Social support in their own words. *Journal of Homosexuality*, 37(1), 95-108.
- O'Donnell, L., Agronick, G., San Doval, A., Duran, R., Myint-U, A., & Stueve, A. (2002). Ethnic and gay community attachments and sexual risk behaviors among urban Latino young men who have sex with men. *AIDS Education and Prevention*, 14(6), 457-471.
- Pachankis, J. E., & Goldfried, M. R. (2006). Social anxiety in young gay men.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0(8), 996-1015.
- Pilkonis, P. A., & Zimbardo, P. G. (1979). The personal and social dynamics of shyness. In *Emotions in Personality and Psychopathology* (pp. 131-160). Springer US.
- Rankin, S. R. (2003). Campus climate for sexual minorities: A national perspective. *New York, NY: National Gay and Lesbian Task Force Policy Institute*.
- Rankin, S. R. (2005). Campus climates for sexual minorities. *New Directions for Student Services*, 2005(111), 17-23.
- Rosario, M., Schrimshaw, E. W., & Hunter, J. (2005). Psychological distress following suicidality among gay, lesbian, and bisexual youths: Role of social relationship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4(2), 149-161.
- Rytwinski, N. K., Fresco, D. M., Heimberg, R. G., Coles, M. E., Liebowitz, M. R., Cissell, S., ... & Hofmann, S. G. (2009). Screening for social anxiety disorder with the self report version of the Liebowitz Social Anxiety Scale. *Depression and Anxiety*, 24(1), 34-38.
- Safren, S. A., & Pantalone, D. W. (2006). Social anxiety and barriers to resilience among lesbian, gay, and bisexual adolescents. *Sexual Orientation and Mental Health: Examining Identity and Development in Lesbian, gay, and Bisexual People* (pp. 55-71).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Sandfort, T. G., de Graaf, R., Bijl, R. V., & Schnabel, P. (2001). Same-sex sexual behavior and psychiatric disorders: Findings from the Netherlands Mental Health Survey and Incidence Study (NEMESI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8(1), 85-91.
- Savin-Williams, R. C., & Ream, G. L. (2007). Prevalence and stability of sexual orientation components during adolescence and young adulthood. *Archives of Sexual Behavior*, 36(3), 385-394.
- Schlenker, B. R., & Leary, M. R. (1982). Social anxiety and self-presentation: A conceptualization

-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92(3), 641.
- Schwartz, S. H. (1992). Universals in the content and structure of values: Theoretical advances and empirical tests in 20 countries.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5(1), 1-65.
- Spitz, R. A. (1949). Motherless infants. *Child Development*, 20, 145-155.
- Stein, M. B. (1996). An epidemiological perspective on social anxiety disorder.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67(Suppl.), 3-8.
- Stice, E., & Barrera, M. (1995). A longitudinal examination of the reciprocal relations between perceived parenting and adolescents' substance use and externalizing behaviors. *Developmental Psychology*, 31(2), 322-334.
- Triandis, H. C. (1994).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approaches to the study of collectivism and individualism. In U. Kim, H. C. Triandis, C. Kagitcibasi, S. C. Choi, & G. Yoon (Eds.),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Theory, Method, and Applications* (pp. 41-51). Thousand Oaks, CA: Sage.
- Trumbetta, S. L., Mueser, K. T., Quimby, E., Bebout, R., & Teague, G. B. (1999). Social networks and clinical outcomes of dually diagnosed homeless persons. *Behavior Therapy*, 30(3), 407-430.
- Turner, R. J. (1981). Social support as a contingency in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2, 357-367.
- Vriends, N., Becker, E. S., Meyer, A., Michael, T., & Margraf, J. (2007). Subtypes of social phobia: Are they of any use?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1(1), 59-75.
- Wadsworth, L. P., & Hayes-Skelton, S. (2015). Differences among lesbian, gay, bisexual, and heterosexual individuals and those who reported an other identity on an open-ended response on levels of social anxiety. *Psychology o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Diversity*, 2(2), 181-187.
- Walker, K. N., MacBride, A., & Vachon, M. L. (1977). Social support networks and the crisis of bereavement. *Social Science & Medicine* (1967), 11(1), 35-41.
- Wethington, E., & Kessler, R. C. (1986). Perceived support, received support, and adjustment to stressful life event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7, 78-89.
- Waller, M. A. (2001). Gay men with AIDS: Perceptions of social support and adaptational outcome. *Journal of Homosexuality*, 41(2), 99-117.
- Wilcox, B. L. & Vernberg, E. M. (1985). Conceptual and theoretical dilemmas facing social support. In I. G. Sarason & B. R. Sarason (Eds.), *Social Support: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s* (pp. 3-20). The Hague, The Netherlands: Martinus Nijhof.
- Williams, T., Connolly, J., Pepler, D., & Craig, W. (2005). Peer victimization, social support, and psychosocial adjustment of sexual minority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4(5), 471-482.
- Wittchen, H. U., Fuetsch, M., Sonntag, H., Müller, N., & Liebowitz, M. (2000). Disability and quality of life in pure and comorbid social phobia. Findings from a controlled study. *European Psychiatry*, 15(1), 46-58.
- Zea, M. C., Reisen, C. A., & Poppen, P. J.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999).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Latino lesbians and gay men.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5(4), 371.

1차원고접수 : 2015. 07. 14.

수정원고접수 : 2015. 08. 31.

최종게재결정 : 2015. 09. 30.

## A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on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Support and Socially Anxious Experiences Among Undergraduate Males with Homosexual Orientation

Hyeong Ji Kim                  Jung Hoon Shin                  Kyu Jin Yon                  Hyang Sook Kim

Sogang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examine socially anxious experienc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support among undergraduate males with homosexual orientation by using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method. Nine males ranging from 19 to 26 years old participated in the semi-structured interview. Data were collected through the primary researcher of the study, and analyzed by three coders and one auditor. Two domains, 9 sub-domains and 24 categories emerged from the data. Social anxiety reported by the participants embodied general characteristics of social anxiety, as well as unique qualities associated with homosexual orientation. Research participants pointed out that characteristics such as accurate understanding and acceptance of sexual orientation and lifestyles of individuals with homosexual orientation, provision of specific help or service that best suits their needs, considerate way of delivering social support that protects their sexual orientation from being exposed to others were perceived as supportive. Two primary paths of approaching supportive individuals or groups were reported: online and offline. Implications to intervene social anxiety of individuals with homosexual orientation, considerations on the unique sociocultural influence of South Korea on the research participants,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 Social Anxiety, Social Support, Homosexuality, Sexual Orientation,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